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대응 대책

권오현*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제2외국어는 한쪽의 '짝사랑'과 다른 쪽의 '배제'로 점철되어 있다. 70년대 이후 외국어교육에서 '2'라는 숫자는 "영어와는 다른 교육가치를 지닌 언어군(言語群)"이라는 순서상의 의미가 아니라, '1'에 들지 못하기에 언제든지 배제 메커니즘이 작동해도 상관없는 하위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즉 '2'는 '1'이 되지 못한 주변부 무리들의 소외를 정당화하는 "배제의 기표"이다. 그것은 특히 한국 교육의 실천성에 동참하려는 제2외국어 진영의 갈망에 대해 교육당국과 학생들이 보인 냉담한 반응에서 두드러진다.

배제의 기표로 낙인찍힌 제2외국어 교육의 운명은 수능에 제2외국어가 도입된 후에도 마찬가지다. '함께 놀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제는 각 대학들이 배제 메커니즘을 가동시킨다. 애초에 제2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던 73개 대학 중에서 일부 대학만이 점수를 반영하여,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장려하겠다고 당초 취지가 크게 퇴조하고 말았다. 이것은 각 대학들이 교육적 판단은 뒤로 미룬 채 학생모집의 수월성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그러나 제2외국어교육의 배제 현상은 단순히 입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 제도, 사회적 분위기, 학생들의 취향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났다. 때문에 총체적 국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2외국어 과목은 관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속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수치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교육에는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위기요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위기요인이 큰 활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불과 몇 년 앞의 상황도 전망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위기요인들을 살펴보고 극복을 위한 몇 가지 가능한 대책들을 찾아보려 한다.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2. 제2외국어 교육의 위기요인

먼저,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없이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 과목 수강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1)참조). 이것은 제2외국어에 대한 개인적 정책적 관심 하락에 상응한다.

표(1): 지난 10년 간 제2외국어 과목 이수자 추이

	2000년	1998년	1996년	1994년	1992년
총 이수자 (독, 불, 서, 일, 중)	1,227,884	1,609,907	1,744,064	1,701,742	1,814,001

다음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는 국민공통교육과정에 들지 못함으로써 기본 이수과목의 지위를 상실하고, 고 2/3학년의 선택과목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때 제2외국어 I [6단위]은 세부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제2외국어 II [6단위]는 개설여부가 완전히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진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 실제적으로는 제2외국어 I 가운데 4단위만 개설되어 전체 시간수 감소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하지 못함.
- 지금까지 고1에서 가르칠 때와 같은 동기화 수준을 기대하기 어려움.¹⁾

또한, 2002년부터 학생들은 자유로운 제2외국어 선택권을 지닌다. 그리하여 기존의 단수개설 학교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제2외국어를 복수로 개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립학교는 복수개설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왔으나 사립고는 아직 단수개설 학교가 많기 때문에²⁾ 기존 외국어와 신설 외국어 사이에 큰 갈등이 예상된다. 이것은 심각한 교사 수급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어의 약진에 따라 제2외국어의 효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언론 매체 등 여론들도 동조하는 편이다.

1) 독일어 수강 고등학생 1/2학년 동기화 수준 비교

필요도 인식(급간:1-5) 평균치 1학년: 2.70 2학년: 2.43
만족도 인식(급간:1-5) 평균치 1학년: 3.03 2학년: 2.76

2) 1999년도에 국공립 및 사립고등학교 제2외국어 개설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개>	<2개>	<3개>
국/공립고 :	194	321	37
사립고 :	313	242	29

- + 카르스텐 엔겔(BMW지사장):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자국어보다 영어 능력을 키우는 데 더 투자합니다.”(KBS 9시뉴스)
- + “영어 하나를 배우기도 힘이 드는데, 제2외국어까지 배운다는 것은 사회적 자원 낭비”(주간동아)³⁾

또한, 제7차교육과정 시작 후 일본어 중국어로 선택 편중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일본문화개방 이후 일본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증폭 및 일본 정부의 적극적 개입 + 한중 교류확대, 한류(韓流) 현상 등 → 제2외국어 내에서 특정 언어의 편식 현상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7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되는 중학교 재량시간에서 생활외국어가 선택되는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외국어를 선택하더라도 일본어나 중국어 반만 개설될 것이고 이런 경우, 외국어선택의 <중-고 연계심리>가 작용하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 중국어 선택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제1외국어 對 제2외국어

제2외국어에 썩워진 ‘배제의 기표’라는 굴레는 언어의 실용가치, 제도적 강요, 교육수요자의 선호도 등 복합적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들은 절대적 기준에서 평가되기 보다는 언제나 영어와의 비교 상황에서 다루어진다. 그리하여 영어와 제2외국어 연합군 사이에는 교육시장 확보를 위한 일종의 힘겨루기가 전개되는데, 양 진영이 표방하는 입장은 <영어교육 단일화론>과 <다언어교육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벌어진 복거일씨와 정시호교수 사이의 지면 논쟁이 힘겨루기의 대표적 사례로서 관심을 끈다.

경북대 정시호교수는 투사적 패기와 냉철한 논리로 다언어교육론을 선두에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작가 복거일씨는 ‘영어 공용화론’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민족어인 한국어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열린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세계어인 영어를 우리의 언어로 삼는 편이 후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처럼 영어에 의한 언어단일화를 주장하는 분이니 제2외국어에 대해 호의적일 리 없다. 그는 “세계의 문화권 자체가 영

3)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영어의 위상 강화 속에서도 세계 주요 나라들은 외국어 선택을 강화하고 있다. <참조: 일본의 大谷泰熙가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 2개 외국어를 필수선택: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집트, 핀란드, 영국,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 * 3개 외국어를 필수선택: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 * 4개 외국어를 필수선택: 아이슬란드 1개국
- * 1개 외국어 필수: 일본과 뉴질랜드 2개국

어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제2외국어는 배울 필요가 없다”며 영어교육 단일화론을 펼친다.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복거일씨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신동아 2000년3월호에 <소위 민족주의자들이여! 당신네 자식이 선택하게 하라>를 게재하고 이에 대해 정시호교수가 이 잡지의 4월호에 <영어 찬미자에게 엄중 경고함>을 실어 복거일씨의 주장을 반박함으로써 전개된다. 두 사람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복거일 : 언어는 도구다. 따라서 특정 언어(모국어)를 우상처럼 떠받들 필요가 없다. 언어선택의 기준은 국제무대에서 도구로서의 활용도이다.
정시호 : 언어는 도구인 동시에 정신이다.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정서와 혼이 배어 있다. 그리하여 언어선택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2) 복거일 : 세계는 영어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민족어는 '박물관 언어'로 전락될 것이다.
정시호 : 영어가 국제어로 통용되기는 하겠지만 동시에 민족어도 발흥할 것이다. 언어나원주의는 21세기에도 계속 힘을 발휘한다.
- 3) 복거일 : 21세기에 인터넷의 확장은 영어의 독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영어로의 단일화가 촉진되리라 예상된다.
정시호 : 앞으로 인터넷은 오히려 다(多)언어주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 언어의 80%가 영어지만, 여기에 소홀했던 다른 언어들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뛰어들면 다음 10년 간 영어의 비율은 40%대로 떨어질 것이다.
- 4) 복거일 : 모국어를 읽힌 다음 영어를 습득하는 것은 인간의 뇌구조로 볼 때 비효율적이다.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영어를 독점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정시호 : 성인들도 집중학습에 의해 네이티브 수준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언어혼련이 효율적이면 여러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어교육 단일화론>와 <다언어교육론>을 각각 대변하는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은 자연히 제2외국어 교육 문제로 나아간다. 주간동아 227호에서 복거일씨는 “영어 하나를 배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제2외국어까지 배운다는 것은 사회적 자원 낭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시호교수는 모국어와 두 외국어를 세 정점으로 하여 시각의 다양화를 이루는 이른바 <면(面)의 시대론>을 강조한다. 즉 쇄국적으로 모국어만 사용하는 시대를 점(點)의 시대라 한다면 모국어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상태는 선(線)의 시대이고, 모국어와 두 외국어를 동시에 구사하여 삼각을 형성한 경우를 면(面)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의 상태는 이해의 지평선을 확장하여 인간의 논리와 사고에 큰 힘을 실어 준다고 정시호교수는 강조한다.

물론 냉전체제의 붕괴 후 미국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국제통용어(lingua franca)로서 영어의 지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빠른 정보교류를 위해 영어 학습에 치중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7개 제2외국어(독어, 불어, 스페인어, 일어, 중어, 노어, 아랍어)가 의사소통 측면에서 그 효용가치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세계는 경제, 문화적으로 3극화되고 있으며 날로 동아시아 권과 EU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중심 국인 독일과 프랑스, 큰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일본,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될 것이 확실한 중국 등 현재의 제2외국어 해당 국가들의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하겠다. 영어와 제2외국어 사이의 여러 지표를 비교해보면, 표(2)에서 보는 바 처럼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영어와 제2외국어 경쟁력(1996년) 비교⁴⁾

항 목	영 어 권	7개 제2외국어
사 용 인 구	372 millions	2.068 millions
매년 발간되는 서적의 언어 비율	28 %	49 %
언어 총생산력 (GLP=Gross Language Product)	7,815 billions	11,797 billions
통상 언어 총생산력 (traded GLP)	2,338 billions	4,270 billions

물론 제2외국어는 여러 언어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만을 대상으로 삼으면 수치는 훨씬 떨어진다. 그러나 각 언어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큰 영역들을 지니고 있고 또 이 영역들은 해당 언어능력이 없이는 정복하기 힘들기에, 영어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겠다. “해당 외국어를 몰라도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다”는 말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오늘날 <다언어교육론>의 정당성을 시사해 준다.

4) David Graddol: The Future of English, The British Council, 1997

4. 유럽어(독어, 불어) 對 동양어(일본어, 중국어)

제2외국어 교육에서 관련 당사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다른 차원은 제2외국어 구성 언어 사이의 조정 문제이다. 최근 각 언론매체들은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 강의 개설이 몇몇 유럽어에 치중되어 있음으로써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2000.03.07 KBS 9시뉴스 등). 이러한 언어배치의 불균형은 제2외국어교육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2외국어교육은 일본이나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유럽어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의하여 1969년도부터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과정의 정식과목으로 인정하고 6단위 수업을 필수화한 이래, 유럽어는 압도적 우위의 위상을 누렸다. 예를 들면 1972년에는 유럽어(독일어/불어)가 556개교, 동양어는 중국어만 3개교에 개설되었다. 이 이후 제2외국어에 순차적으로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7차 교육과정부터)가 편입되면서 외국어 이수자의 균등 배분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자연증가(학교신설)분 할당과 독일어, 불어 비율의 상대적 축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0년 현재 제2외국어 수강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표(3))과 같다.

표(3): 2000년도 제2외국어 선택 현황⁵⁾

수강학생수(명)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전 체 (인문계)	332,136 (317,953)	208,386 (199,087)	13,143 (12,792)	581,329 (275,649)	92,890 (80,606)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체로는 제2외국어 균등 배분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는 제2외국어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였지만 지금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언어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많은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면, 세 언어(독일어, 불어, 중국어)의 3분 형태에 가깝지만 수요나 비중에 비해 중국어와 스페인어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 그리고 남/여학교에 따라 특정 언어를 집중 배치하는 현상(남자고: 독어, 여자고: 불어)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대다수 학생이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가

5) 이 도표는 교육부 통계연감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 연감에 러시아어는 빠져있으며 아랍어는 7차 교육과정부터 도입된다.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생활에 사용 수요가 높은 일본어 위주(약 88%)로 개설되는 것은 일견 타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어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2외국어 내의 언어 선택 비율은 2002년에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급격히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인문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2외국어를 학생들이 완전히 자유 선택하게 하는 경우 6개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표(4)처럼 변화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 4월 기준) 그리고 학생들의 희망대로 제2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사 수요도 급격히 변함을 보여준다.

표(4): 제2외국어 완전 자유 선택시 수강 학생 및 필요 교사수 변화

	수강 학생 변화			필요 교사수 변화		
	학교 지정	자유 선택	증감 대비	현재 교사수	필요 교사수	증감 대비
독일어	317,953	101,450	-216,503	1188	501	-687
프랑스어	199,087	64,074	-135,013	695	266	-429
스페인어	12,792	58,734	+45,942	53	199	+146
러시아어	3,825	16,018	+12,193	17	55	+38
일본어	275,649	501,021	+225,372	1637	2353	+716
중국어	80,606	148,615	+68,009	303	519	+216

사실 제2외국어 내 개설 언어를 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다. 교사양성과 기존 교사의 재배치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예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언어의 경쟁력에⁶⁾ 대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제2외국어선택과 관련하여 언론, 교육관료, 학생들이 입을 모아 제기하는 “학생들의 자유선택에 맡기자”는 주장은 최근 교육계에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있지만, 아직 판단력의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상 자체의 선택을 일임하는 것은 자칫 <교육의 포기>로 귀결될 수 있다. 교육은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적 판단에 의거하여

6) <English 2000>은 영어를 100으로 했을 때 1995년 주요 언어들의 경쟁력(Global influence)을 독일어 42, 불어 33, 일본어 32, 스페인어 31, 중국어 22, 러시아어 3으로 평가하고 있다.[English 2000, 59쪽 참조]

선택을 유도한 후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이념을 뒤로 물린 채, ‘오로지 배우기 쉽다’, 혹은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어만을 선택하는 상황을 허용한다면, 제2외국어교육은 훗날 새로운 왜곡상을 드러낼 것이며 그것의 조정은 또 다른 진통을 낳으리라 예상된다.

5. 제안: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대비

첫째, **조정기간 운영**: 지금까지 제기된 제2외국어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단순히 미봉책으로 현재 체계의 연장만을 추구한다면 위기요인이 불어나 더 큰 충격을 몰고 올지 모른다. 그리하여 제2외국어 교육구조에 대한 반감이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합리화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조정기간을 운영해야 하리라 본다. 비록 특정 언어의 수강 학생수가 적어지더라도 경쟁력 있는 상태로 조정이 전개되도록 유도한 후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기화가 약한 유럽어 수강자의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이 <소수정예> 방식으로 나아가면, 역시너지효과에 말려들어 유럽어 교육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수강인원수를 조정하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교사들과 합의 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둘째, **제2외국어교육 이념 개발**: 사실 그동안 대학의 제2외국어 학과는 기존의 지분에만 안주한 채 <왜 제2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념의 개발을 등한시한 면이 없지 않다. 이제는 제도가 보호해주는 시대 혹은 특정 언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긍정적 정서에 의존하는 시대를 지나 제2외국어도 하나의 <양질의 상품>으로 구매를 호소해야 할 상황이 도래한 만큼, 학계와 현장교사가 전면내세울 교육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맥락 속에 제2외국어교육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택 전 외국어별 홍보 기회 제공**: 어차피 제2외국어선택이 분할 구도로 가는 것이라면 각 언어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맹목적인 추종 혹은 자료의 확대 해석으로 비추어지면 제2외국어의 교육적 토대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보다 냉정하게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언어적 시장 가치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발굴하여 제시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항목들이 통계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한국적 현실에 접목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 이 때 영어일변도가 아니라 언어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자료나,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내에서 각 언어의 시장성을 높게 평가한 자료들이 집중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외국어별 차별화 전략 수립**: 제2외국어 영역 7개 언어는 교육목표나 방식에서 같을 수 없다. 영어, 일어, 중국어는 의사소통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만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전자의 언어들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사실 세계화물결과 더불어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유럽어 교육은 실용성 면에서 도 학술어적 위치 면에서도 교육가치 및 효용성을 잃어 갔다. 영어, 일본어 같은 통용어를 기준으로 기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중등 외국어교육의 기본 지침에 유럽어는 무작정 편승하기보다는 독자적 교육이념,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유럽어도 일상적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인터넷 및 전자메일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다시 읽기 교육을 강화하든지 혹은 넓은 의미의 문화교육과의 접목 형태를 검토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다섯째, **언어의 다원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2외국어 관련들이 스스로 21세기에 언어의 다원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영어의 장래>는 “21세기에도 영어를 능가할 언어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때에는 영어가 지금 누리는 그런 독점적(monopolism) 위치를 점하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언어들에 지역적 토대와 영향력 있는 분야를 근거로 독과점(oligopoly)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영어의 장래>는 진단한다.⁷⁾ 21세기의 언어 시장이 지금처럼 영어의 독점(獨占) 형태가 아니라 몇몇 언어의 과점(寡占)형태로 정립된다면, 지금의 제2외국어는 새로운 세기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정책당국도 현재의 상황을 고정된 모델로 보지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언어지도를 그려보고 이를 토대로 언어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문적 교양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인문정신은 다양성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현실적 욕구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회의 두터운 토양이다. 그리고 언어는 인문적 정신을 인류가 공유(共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공유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차츰 소외될지 모른다. 외국어교육의 가치는 지금 눈앞의 필요성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의 뿌리에서 서서히 잉태될 수도 있다. “외국어의 매력과 가치는 비단 경제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되며, 외국어는 보다 넓은 세계에 대한 통찰, 행위 및 정신 차원을 확대하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⁸⁾ 지적에 대해 우리의 교육 정책자들도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

7) David Graddol, 58쪽

8) Miachel Cryne: Über den Reiz der deutschen Sprache.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hrsg.v. A. Wierlacher, u.a., München, 130쪽

참 고 문 헌

- 권중훈(1999) : 「고등학교 독일어교육 현황」, In: 『독어교육』, 제17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교육부 : 『교육통계연감』, 1990-1999년, 서울
- 서울 중등 독일어교육 연구회(1997) : 『독일어교육연구』 창간호
- 정광수(1999) : 「고등학교에서의 독일어교육」, In : 『제2외국어(독어/불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독일어교사회, 한국프랑스어교사회,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프랑스어문교육학회 주최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 정시호(1999) : 「한국 독일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In : 『외국어교육연구』 2집,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 Clyne, Michael (1997) : Über den Reiz der deutschen Sprache. In :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hrsg.v. A. Wierlacher, u.a., München
- Graddol, David (1997) : The Future of english, British Council, London
- Honda, Yoshisaburo (1994) : Motive für die Wahl von Deutsch als Fremdsprache und Germanistik bei Studentinnen und Studentin. In: Die Deutsche Sprache in Japan, hrsg.v. Ulrich Ammon, München
- Kim, Hi-Youl (1997) : Die Problematik der Sprachpraxis im Fach Germanistik in Korea. In: Info DaF, 24. Jg., Nr.5
- Schlag, Bernhard (1995): Lern- und Leistungsmotivation, Opladen
- Witte, Barthold C. (1994) : Die Stellung der deutschen Sprache in der Welt. In: Materialien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 35, hrsg.v. FaDaF, Regensburg

〈Abstract〉

Der Unterricht der zweiten Fremdsprachen an koreanischen Oberschulen
- Probleme und Vorschläge -

Kwon, Oh-Hyun*

Die europäischen Sprachen als die zweiten Fremdsprachen an koreanischen Oberschulen stehen heute vor einem großen Wendepunkt. Viele machen sich Sorgen über das rapide abnehmende Interesse an Deutsch und Französisch. Obwohl viele Schüler noch diese europäischen Sprachen lernen, hat die Mehrheit von ihnen keine klaren Motive für die Wahl der Fremdsprachen. Die niedrigen Motivation hat ihre Ursache vor allem darin, daß viele allgemeine Oberschulen nur Deutsch und Französisch zur Wahl anbieten, obwohl die meisten Schüler Japanisch oder Chinesisch wählen wollen. Ab 2002 müssen jedoch an den allgemeinen Oberschulen alle Sprachen angeboten werden, die von den Schüler/innen gewünscht werden, so daß abzusehen ist, daß die Zahl der Japanisch- Chinesischschüler rapide zunehmen wird und die der Deutsch- oder Französischschüler stark abnehmen wird.

Um das Interesse an den europäischen Sprachen zu erhöhen, sollten Bildungspolitiker, Professoren und Lehrer zusammenarbeiten und die Bedürfnisse und Tendenzen der Schüler genau analysieren und dementsprechende Lehrbücher und Unterrichtsmethoden entwickeln. Der Deutsch- und Französischunterricht in Korea vernachlässigte in der Tat die Entwicklung von neuen Unterrichtsmodellen entsprechend der Frage "Warum sollten Deutsch und Französisch überhaupt gelehrt werden?". Es ist nicht übertrieben, wenn man behauptet, daß der Deutschunterricht an den Oberschulen ohne wissenschaftliche Diagnose und Einschätzung hilflos der äußeren Krise ausgeliefert worden ist. Die Zeiten sind vorbei, da der Fremdsprachenunterricht dem institutionellen Schutz oder der allgemeinen positiven Einstellung bei der Bevölkerung gegenüber der europäischen Sprachen anvertraut werden konnte. Angesichts der Situation, daß der Fremdsprachenunterricht inzwischen auch als eine der "Qualitätswaren" die Kunden anwerben muß, sollten Wissenschaftler und Lehrer vor Ort Unterrichtsmethoden entwickeln und diese bis in die Details ausarbeite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